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선문
전화 042-470-4040

보 도 자 료
2025. 3. 27.(목)

제 목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 수사팀」(팀장 허성규 형사3부장)은 대전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7세 초등생 피해자를 교내 시청각 실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오늘(3. 27.) 피고인 명재완(여, 48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공용물건손상, 폭행죄로 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은 사건송치 전부터 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추어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및 범죄심리 자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등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 본건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불안과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와 직장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분노감이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아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로서,

-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한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에 용이한 장소 및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임을 규명하였음
-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 관련 비용 긴급 지급 및 심리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향후 검찰은 **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

사건개요

가. 피고인

- 명재완(여, 48세), 초등학교 교사 ※ 초범
- 사경, '25. 3. 12.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나. 공소사실 요지

- '25. 2. 5.경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 '25. 2. 6.경 교내 연구실에서 원팔로 동료 교사인 피해자 A(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
- '25. 2. 10.경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여, 7세)을 유인한 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특가법 §5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87(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사경과

- '25. 2. 10. 16:50경 사건 발생
- '25. 2. 11.~3. 6. 피해자 부검, 참고인 조사 등
- '25. 3. 8. 대전지법, 구속영장 발부
- '25. 3. 12. 대전서부경찰서, 사건 송치
- '25. 3. 12.~3. 26. 피고인 조사 및 심리분석,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
- '25. 3. 27. 구속 기소

3

수사결과

가. '유기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

- 피고인의 진료기록 일체 및 자필 메모,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에 대한 분석,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및 범죄 심리 자문 등을 통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 극단적인 감정 기복 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와 이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확인함

피고인은 복직 직후인 '25. 2. 5. 교내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엘리베이터 벽면을 걷어찼으며,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를 들고 연구실 내 파티션을 내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 6. 동료 교사를 폭행하면서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너희는...'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남편과 통화하며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걸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임

- ※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남

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

- 피고인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 주변인과의 통화 내용, 범행도구인 칼을 구매하기 전·후의 CCTV 영상, 범행 전 피고인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 물색 및 유인 과정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한 후 범행이 용이한 장소 및 시간대와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살해한 것으로 철저히 준비된 계획범죄임을 확인함

피고인은 본건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경동맥 찌르기 연습’, ‘초등학생 살인’, ‘사시미칼 살인’, ‘살인 계획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검색하고 미리 돌봄교실 근처 방음시설이 갖추어진 시청각실을 물색한 후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문을 열고 시청각실 내 물품창고에 회칼을 숨겨 둔 채 마지막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돌봄교실을 지켜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시각에 피해자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하여 살해하였는바 이는 ① 인터넷검색(범행수법 연구) → ② 준비 → ③ 실행의 과정을 거친 계획범죄임이 자명함

다.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

-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 관련 비용 지급 및 심리 지원을 하였고, 향후 피해자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에 힘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

4

향후계획

- 대전지검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또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 및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임 ☑